

아마(Linen) (1)

마는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. BC 2천년에는 이집트 제 1 왕조시대의 왕의 묘에서 마 재배에 대한 벽화그림이 발견되고 미라가 마직물로 싸여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.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희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(Herodotus)의 저서 "역사"에서 "이집트 인들은 '카라시리스(Kalasiris)'라고 하는 아마로 된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백색 양모 상의를 입고 있었다."라 하였고, "미라를 싼 천은 아마였다"고 적어놓고 있다.

동시에 19세기엔 세계 전 섬유 소비량의 약 1/3이 마였었다고 하며, 여기서 말하는 마는 대부분 아마였다. 현존하는 아마 직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기원전 3천년경의 이집트 유물의 직물은 1인치 평방에 경사 160올, 위사 120올의 고급 직물이었다.

2009년 9월 미국 과학지 Science에는 그루지야 국립박물관과 하버드 대학 국제팀이 그루지야의 동굴에서 검은색과 청록색으로 염색된 약 3만 년 전의 아마로 된 염색된 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. 아마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섬유라는 것을 재차 입증하여 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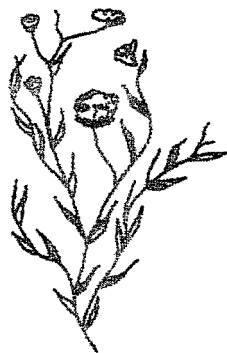
아마를 서양의 마, 저마를 동양의 마라고도 부르는 이 아마는 일년초로서 원산지는 코카서스 지방에서부터 중근동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, 현재의 주산지는 비교적 추운 지방에서도 재배가 되며, 주로 프랑스 북부, 벨기에, 러시아, 동유럽 및 중국 등이다.

아마는 아마과(Linaceae)에 속하는 식물인데, 여러 가지 변종이 있어 100여종이 된다고 하며, 현재 쉽게 재배되고 있는 것은 보통의 아마로서 학명을 'Linum Usitatissimum' 이라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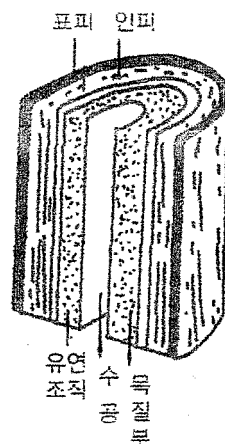
'Linum' 이란 실이나 선(線)을 뜻하며, 'Usitatissimum' 이란 "가장 쓸모 있는" 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. 아마로 만든 가늘고 튼튼한 실이란 의미로 Line 이란 용어가 생겨났고, 실이란 형상에서 "선(線)", "줄기, 열(列)" 등 많은 뜻으로 연결되는 용어가 생겨났다. 프랑스어로는 'Linen' 을 'Lin' 이라고 하며, 가정용 의류나 내의류를 'Linge' 라고 하던 것이 내의의 대명사로 '란제리(Lingerie)' 가 생겨났다고 한다. 예전에

프랑스의 내의는 거의 모두를 리넨으로 만들던 관습을 엿볼 수 있다.

인간이 아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던 배경을 추구하여보면 유질이 좋고 영양이 좋은 아마의 씨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. 따라서 섬유는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되며, 그 씨는 지금도 아마인유(Linseed Oil)라고 하여 식용은 물론 고도한 건조성을 이용하여 페인트, 바니시(vernish), 고무 대용품, 인쇄 잉크용 및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.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‘리놀륨(Linoleum)’ 이라고 알려진 아마(Linum)와 기름(Oleum)을 합성하여 놓은 아마인유와 침엽수의 나무가루를 합성한 건축자재가 유명한 작품이다. 아마를 이탈리아어로는 ‘라이노우(lino)’ 라고 한다. ♣(공석봉)



아마 식물



아마 식물 줄기의 구조